

제주 주유소 기름값 6주째 내림세

휘발유 리터당 1710원대·경유 1610원대
국제유가 진정에 하락 흐름 지속 ‘주목’

새해 들어 제주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하락하며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주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12.18원, 경유는 1611.68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약 73원, 경

유는 89원가량 내린 수준이다.
일간 기준 흐름을 보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초 1770원대에서 꾸준히 낮아져 21일 기준 1710원대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경유는 1680원대에서 1610원대로 떨어지며 휘발유보다 하락 폭이 더 컸다.
주간 기준으로도 내림 흐름이

이어져 6주째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달 둘째 주(1월 11~15일) 제주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743.19원으로, 최근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12월 첫째 주 1796.48원과 비교해 약 53원 낮아졌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가도 1734.40원에서 1642.03원으로 약 92원 내렸다.
한편 국제유가는 지난주 이란 시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상승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완화 발언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배럴당 3.0달러 오른 62.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3달러 상승한 71.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0달러 오른 8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제주지역 유가 하락 흐름의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달코미 양배추’ 서울 소비자 점점 확대 한림농협, 서울지역 농협과 공동구매 행사

서울에서 제주산 ‘달코미 양배추’ 공동구매 행사가 진행됐다.
한림농협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12개 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동구매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서울지역 농협이 올해 처음 추진한 농산물 공동구매 사업이다.
한림농협은 행사 당일 달코미 양배추를 공동구매를 통해 기존 판매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달코미 양배추’는 한림농협이 4

년간 시험재배를 거쳐 상품화한 소형 양배추다.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며, 일반 양배추의 약 3분의 1 크기로 1~2인 가구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소비 트렌트에 부합하는 농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림농협 차성준 조합장은 “서울지역 농협의 협조로 제주 농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생산농가와 함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른지기자

고물가에 수돗물 원가·요금 모두 올라

요금 현실화율 74%

고물가로 수돗물 원가와 요금이 모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기준 상수도 통계를 22일 홈페이지(mcee.go.kr)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 기준 평균 수도요금은 1L당 0.829원으로 전년보다 4.1% 올랐다. 요금과 함께 수돗물 1L당 원가도 1.114원으로 전년에 견줘 4.2% 상승했다. 요금과 원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요금 대비 원가 비율을 말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74.4%로 전년(74.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등 물가가 오른 것이 요금과 원가가 모두 오른 이유로

분석된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2024년 상수도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사는 인구(급수인구)는 5242만7000여 명으로 총인구(5270만6000여 명)의 99.5%에 달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2024년 96.5%로 2015년(92.3%)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은 총 68억8500만L이었다. 1명이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305.9L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물의 양을 말하는 누수율은 2024년 10.1%로 전년(9.9%)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요금이 부과된 물 비율은 86.1%로 전년(86.3%) 대비 0.2%포인트(p) 낮아졌다.

연합뉴스



‘두존쿠’ 열풍에 피스타치오 품절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견과류 코너에 피스타치오 품절 안내문이 놓여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존쿠’ (두바이 존독 쿠키)의 주재료인 피스타치오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했다.

제주도 에너지바우처 확대… 난방비 부담 덜다

등유·LPG 사용 가구 추가 지원… 최대 51만4000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도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도시가스보다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에 난방연료 구입비를 추가 지원해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기존 평균 세대당 36만7000원에서 14만7000원 추가한 51만4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기존 국민행복카드와는 별도로 난방용 등유·LPG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단, 배달 주문 시 배

달비를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
대상자 안내와 카드 배부는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순차 진행된다. 1차는 1월 21일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하고, 1월 2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카드 발급기간은 오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동일한 1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카드를 받으려면 사용기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 확인과 선불카드 기명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노인·장애인·다자녀 등 시급성이 높은 세대에 우선적으로 카드를 배부할 계획이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신한카드 가맹점) 확인 및 판매소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한금)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20,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사 심의번호 2010-GN18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제주청능재활센터

이명전문케어센터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수료

산학협력교수

전문 청능사

언어 재활사

제주시청

와이덱스 보청기

광양사거리

CGV

화북